광주·전남 총선 누가 뛰나

물갈이 vs 명예회복… 속속 출마 선언

장·차관 그룹 이용섭·장병완·전윤철·조영택·임내현

前 국회의원 박주선·박지원·한화갑·강운태·이정일

정치 신인 심재민·임현모·정재훈·이형석·이상갑

광주·전남지역 내년 총선 화두가 '물갈이'로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예비 주자군으로 거론되는 전·현직 장·차관급 인사들과 명예회복에 나서는 전직 의원 그룹,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치 신인들이 지역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는 광주와 전남지역의 선거구가 대폭 조정될 전망이어서 대부분의 입지자들은 막판까지 지역구 선정을 놓고 눈치작전을 벌일 전망이다. 광주·전남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예비주자들을 조명해본다.

◇**전·현직 장·차관 그룹**=우선 이용섭 건교부장관은 분구 예정인 광산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남구나 서구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북 갑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조영택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은 당초 광산구를 노렸으나 최근 서구 갑으로 마음을 정했다.

전윤철 감사원장의 경우, 목포 및 해남·진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임상규 농림부장관도 순천 내지 광주 북구 진출설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김종빈 전 검찰총장이 여수시, 김승규 전 국정원장의 광양·구례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본인들이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임내현 전 광주고검장은 광주 북을 출마 준비를 마친 상태다.

홍영기 전 서울경찰청장의 목포 진출설과 이승재 전 해양경찰청장의 광양·구례 도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완기, 정찬용 전 인사수석의 전남 지역구 진출설도 제기되고 있으나 정치적 성향 등을 고려할때 출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전직 국회의원 그룹**=박주선 전 의원이 광주 동구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김경천 전 의원도 광주 동구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강운태 전 의원의 광주 남구 복귀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서울 영등포가 지역구인 김민석 전 의원의 광주 남구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사면 여부에 따라 박지원, 한화갑, 이정일 전 의원의 행보도 관심거리다. 일단 사면이 현실화된다면 세 사람 모두 국회 진출을 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목포나 해남·진도 출마가 예상됐던 박지원 전 의원은 최근 사면을 전제로 광주 북구 진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갑 전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신안·무안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합민주신당에 합류, 비례대표로 진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 전 대표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목포 출마설도 제기되고 있다. 이정일 전 의원은 사면이 이뤄지는대로 해남·진도에 출마, 명예회복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기에 박상천 민주당 대표는 일단 비례대표로 18대 국회 진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자신의 지역구(고흥·보성)에 출마할 계획이다.

한편, 유인학 전 의원은 영암·장흥 지역구 공략에 나서고 있으며 국창근 전 의원도 지역구 변동에 따라 18대 총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 서구를 노렸던 김영진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였던 강진·완도 공략에 나서고 있으며 정철기 전 의원도 광양·구례에서 명예회복을 벼르고 있다.

◇**기타 정치 신인 그룹**=광주시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심재민씨가 광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한 상태며 김영록 전남도 행정부지사의 강진·완도 출마설도 제기되고 있다.

임현모 광주교대 총장이 북 갑에 도전 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재훈 동아병원장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광주 남구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이형석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이 광주 북 을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며 민형배 전 비서관은 광산구에서 바닥을 닦고 있다.

여기에 이상갑 변호사가 광산구 및 남구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으며 조기상 변호사가 광주 북 갑, 구희승 변호사가 순천시 출마 채비를 갖추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재두 민주당 부대변인이 광주 북 갑에 도전할 예정이며 정동영 선대위에서 수석부대변인을 맡았던 김영근씨가 영암·장흥 지역구 출마에 나설 계획이다. 김정현 민주신당 수석 부대변인도 장성·담양·곡성 출마가 거론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당 정체성 회복부터"

김민석 민주당쇄신위원장

민주당 당쇄신특별위원회 김민석〈사진〉 위원장은 27일 오후 광주시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당의 정체성 정립과 지지율 회복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쇄신 작업의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광주·전남 지역 당직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당 쇄신위의 활동 원칙과 쇄신 방향을 설명하면서 "민주당의 대선 참패는 당 정체성 혼란과 지지율 하락의 악순환 고리가 만든 결과"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당 쇄신위의 활동 원칙으로 회의록 공개를 통한 무관심 극복과 합의제에 의한 단일안 도출을 제시했으며 ▲당 정체성 회복 ▲면모 일신 ▲시스템 쇄신 ▲공천 혁명 등 4가지를 쇄신 방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당 정체성 회복 문제를 두고 "대선 과정에서 당과 이인제 후보 사이에 불거진 정체성 괴리를 회복해야 한다"며 "조순형 의원이 당에 돌아오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 안팎에서 '한-민 공조론'이 제기됐지만 앞으로 당 내에서 언급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 위원장은 또 "박상천 대표 체제 유지, 박 대표 유임과 지도부 보완, 지도부 전면 교체 등 3가지 방식 중 무엇이 적절한 지는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면서도 조기 전당대회 개최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와 함께 집단 지도체제론에 대해서도 "'계파 나눠먹기'의 무책임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남구 출마설에 대해 "몇 분이 (저에게) 광주 남구 출마를 요청한 적이 있으나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남구 출마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대통합민주신당 초선의원들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조찬회동을 갖고 전면적인 당쇄신안 등 당의 진로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金心 기대" "金心 탈피"

당 쇄신 작업 들어간 신당-민주당 논란

신당 "총선 호남 쟁탈전 유리"

민주 "대선 실패 책임 느껴야"

총선을 앞두고 쇄신 작업에 들어간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사이에 또다시 '김심'(金心 :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의중) 논란이 일고 있다.

신당은 김심이 신당에 있다고 주장하며 총선에서의 영향력을 기대하는 한편 민주당은 이를 경계하면서 한편으로 '탈 김대중(DJ)'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 같은 논란은 동교동계 핵심인사인 김 전 대통령 측 박지원 비서실장과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연말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경우 총선 출마설로 더욱 첨예화할 조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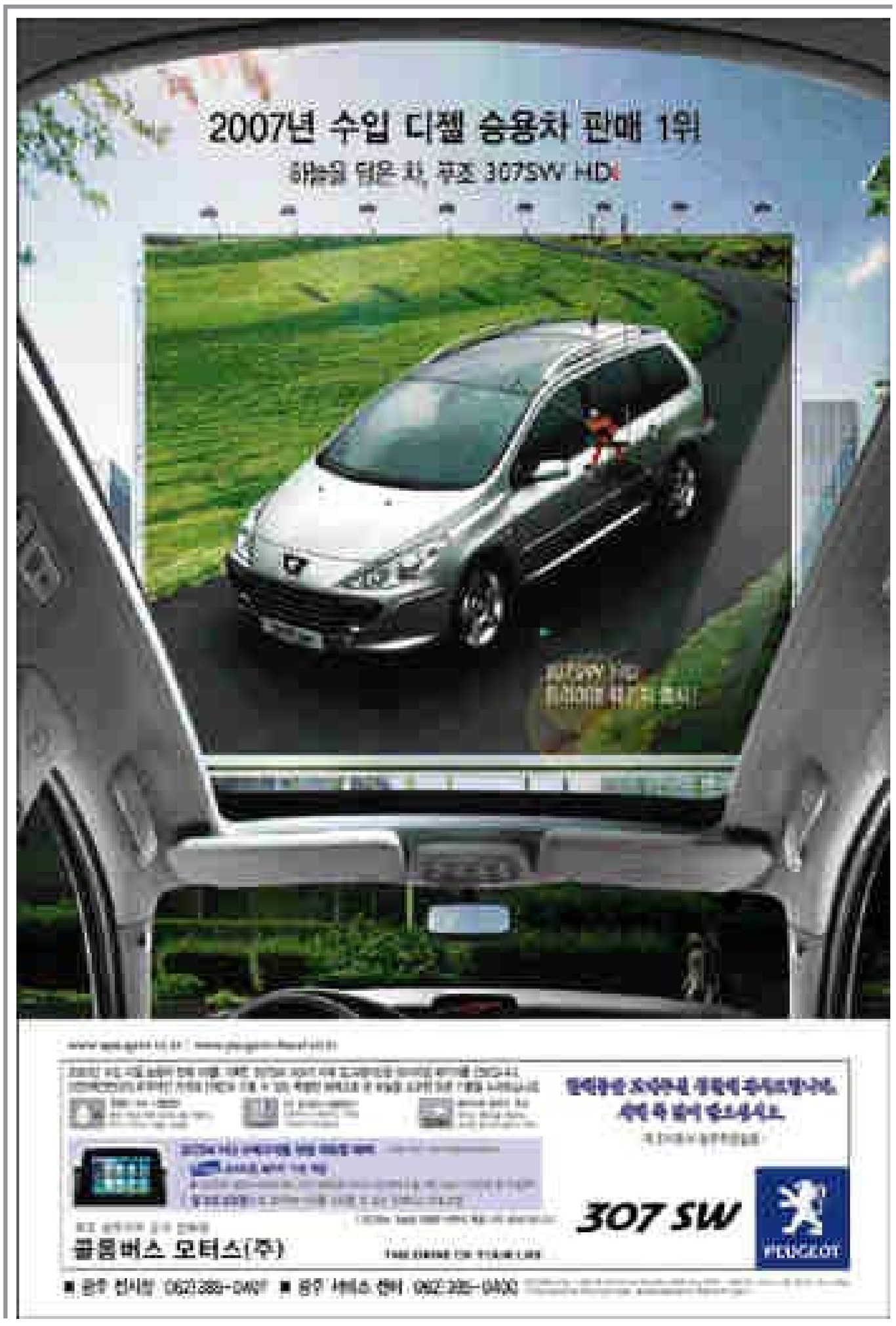
신당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미 민주당으로부터 마음이 떠났고 이번 총선에서도 신당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범여권 대통합 및 대선과정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차남인 김홍일 전 의원과 김홍업 의원을 비롯해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등 수많은 DJ 측근들이 신당에 합류했다. 또 국민의 정부 탄생에 앞장섰던 연청의 회장을 맡고 있는 윤철상 전 의원도 조직을 이끌고 대선과정에서 '정동영 지지'를 선언했다. 때문에 내년 총선의 호남쟁탈전에서 민주당에 비해 일단은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고 평가하고 있다.

더욱이 김 전 대통령은 지난 24일 신당 정대철 상임고문의 방문을 받고 "(대선 참패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등 남 탓하지 말고 '다 우리 탓'이라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공감을 얻을 것"이라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통령은 또 대북 송금 특검, 민주당 분당(分黨), 대연정, 당정 분리 등 잘못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잘못했다고 말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총선에서는 국민에게 '우리가 잘못했지만 한나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달라'고 호소해야 표가 나올 수 있다"고 훈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DJ가 대선에 이어 총선까지 개입하면 총선에서 또다시 참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이다. 때문에 개입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가 하면 대선 패배 책임론까지 거론하고 있다. 개입의 여지를 차단하는 한편 개입할 경우 영향력을 감소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박상천 대표가 24일 '두 대통령(김대중, 노무현)이 이번 대선 실패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한 데 이어 황태연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장도 26일 "김 전 대통령이 민주당을 말살하고 '대(大)잡탕 정당'을 만드는 데 앞장선 결과 대선에서 패했다"며 "이는 과거 DJ가 민주당을 분당(分黨)해 나와 평민당을 만들어 노태우에게 정권을 헌납한 것과 같은 정도의 죄악"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DJ 책임론'에서 더 나아가 '탈(脫) DJ론'을 총선 전략으로 쓰자는 얘기도 나온다. 김민석 당 쇄신특위 위원장은 "호남은 내년 총선에서 '포스트 DJ', '포스트 노무현' 색채를 띤 인물을 선택할 것"이라며 "이에 걸맞은 공천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